

석유화학 수출액 200억달러 돌파

산자부, 2005년 사상최대 기록 ... 자동차·반도체는 300억달러 상회

자동차, 반도체, 기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6대 업종의 2005년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자동차와 반도체는 단일품목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하고 기계와 석유화학은 사상 처음으로 수출 2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환익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8월3일 브리핑에서 2005년 하반기에는 기계, 디지털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4개 업종의 수출전망이 가장 밝으며 조선, 석유화학도 수출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05년 상반기 수출실적을 기준할 때 8대 주력 기간산업이 전체 수출의 82% 이상을 점유하면서 흑자가 564억달러로 전체 무역흑자 125억달러의 4.5배에 달했고 달러화 약세, 고유가 등 부정적인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8대 주력 기간산업의 수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전망치대로 수출이 실현되면 섬유와 디지털 전자를 제외한 6개 업종은 모두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자동차와 반도체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기계와 석유화학은 2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환익 차관은 2005년 수출 2850억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고유가로 무역수지 악화 요인이 발생한 만큼 무역수지 전망치 280억달러 달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상반기 수출실적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석유화학(39.9%), 철강(36.7%)과 국산제품의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제고된 자동차(25.1%), 기계(24.8%) 등 4개 업종이 가장 좋았다.

섬유(-6.9%)는 섬유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인디아 등 개발도상국의 시장잠식으로, 디지털전자(-1.9%)는 원화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상반기 수출실적과는 달리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증가추세로 반전되는 디지털전자를 필두로 기계, 반도체, 자동차 등 4개 업종의 수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전자(15.0%)는 2005년 10월 개최될 예정인 한국전자전을 기점으로 각종 신제품 출하를 통해, 반도체(16.4%)는 계절적 수요 확대와 플래시 메모리 수요증가 등으로, 기계(24.4%)와 자동차(9.9%)는 상반기의 수출 확대요인이 큰 변동 없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수출증가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철강(7.0%)은 철강가격 하락으로 수출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섬유(0.4%)는 중국 등 개도국의 지속적 시장잠식으로 급격한 수출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5/08/04>